

好 시절 갔다, 수익 먹구름... 新먹거리·디지털화 관건

2019 금융전망

① 은행

가계대출자산 증가율 감소폭 크고 대손비용 늘면서 실적 하락세 전망
부실 우려 속 '리스크 관리' 숙제로 NIM 높은 신흥국 진출도 모색해야

지난 2년간 은행은 저금리를 발판으로 호시절을 누렸다. 급격히 늘어난 가계대출은 그대로 은행의 사상 최대 실적을 가능케 했고, 구조조정 마무리로 건전성도 대폭 개선됐다. 국내은행들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이미 2017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올해 상반기를 정점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인상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과 신흥국 금융불안은 지속되고 있고, 내수경기는 불안하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강화됐고, 은행

<국내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현황>

[자료=KDB미래전략연구소]

구분	내용
신한은행	-블록체인 교육컨설팅, 전직원 코딩 교육 -이자율 스왑거래 체결과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그룹 내 신한디지털 혁신센터 설립 -ICT기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위한 솔루션 개발 등
KB국민은행	-2025년까지 2조원 규모 투자 및 디지털인재 4000명 양성 -디지털 무인자동화점 확산
KEB하나은행	-디지털전환 특임조직 신설, 데이터전략부 신설 -전직원 코딩교육 예정
우리은행	-빅데이터센터 및 디지털전략부 신설 -최고디지털 책임자 영입(외부전문가)
IBK기업은행	-전직원 코딩 교육 -기업전용 스마트뱅킹서비스(비대면 여신 전자약정 서비스 등) 도입 예정

진입규제 완화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은행권을 둘러싼 환경이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인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은행, 수익성 하락세로 전환하나

올해 은행의 수익성 전망은 부정적이다.

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원은 "은행의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인 가계대출자산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와중에

대손비용 또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해 2019년 수익성은 다소 악화될 것"이라며 "수익과 비용의 증감요인을 고려하면 올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9조8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리가 오르면 순이자마진(NIM)은 다소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대손비용 또한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은 경기 둔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하나금융투자 한재태 연구원은 "2년 반 동안 5000명을 내보냈던 은행이 정부에 코드를 맞추느라 최근 1년간 7500명을 뽑았고, 더욱이 경제성장 둔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비용도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수익원 확보 비상

최근 몇 년새 은행들의 대출성장이 위기에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따라서 은행들의 올해 우선 과제는 리스크 관리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이신영 연구원은 "최근 국내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상승했지만 지속가능한 수익창출능력 개선에는 미흡한 상태"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자금운용이 쏠리는 현상은 리스크관리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부실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수익원 확보도 시급하다.

금융연구원 이 선임연구원은 "신흥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인수합병(M&

A)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신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가능성과 NIM이 높은 신흥국 진출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환경변화 역시 리스크인 동시에 기회요인이다. 이미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 작업을 본격 진행 중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각 은행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지배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 진화의 목표가 기술중심이 아닌 고객중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서대훈 연구원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IT관련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IT인력 확충 및 기존 인력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은행들은 디지털 기술개발에 대한 역량 및 시간의 제약이 있어 핀테크 업체와 협업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박용만 "과거 규제 기업성장 발목"

(대한상의 회장)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여야 지도부·경제계 인사 한자리에

국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를 기념했다. 재계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기대를 표하면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19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에서 1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매웠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이사회의장, 황각교 롯데지주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장인하 포스코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이 자리를 잡았다.

정계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

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영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가 여야를 불문하고 모였다.

대한상의 신년인사회는 국내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과 외교사절을 비롯해 사회 단체와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회다. 1962년부터 매년 열려왔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해 경제계 성과를 언급하면서 인사말을 시작했다. 1인당 소득 3만달러와 무역 규모 1조달러, 한반도 평화체제 전기를 마련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 하향세를 되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표했다. 구조적 문제 대부분은 원인이거나 해법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동안 이슈나 이해관계라는 장애물 때문에 변화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한다고 자평했다.

박 회장은 새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감사도 표했다. 기업들 호소가 상당수 반영됐으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디테일'을 잘 설계해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는 소망도 밝혔다.

이어서 박 회장은 경제와 사회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과거 규제 시스템으로 성장과 혁신이 막힌 상황,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들었다.

[김재기 기자 juk@

"피부에 붙이는 소프트 전자기기 눈앞"

홍용택 서울대 교수팀 장기적인 신뢰성·신축 가능한 액체 금속-고체 금속 접합 개발

국내 연구진이 미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핵심 기술인 '부드러운 전자 회로' 실용화를 앞당길 연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현)는 전기·정보공학부 홍용택 교수(사진) 연구팀(오은호 연구원)이 주름진 탄소나노튜브 확산 방지벽을 이용해 장기 신뢰성을 갖고, 신축이 가능한 액체 금속-고체 금속 간 접합 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 따라, 기존 신축성 전자 분야에서 난제로 여겨졌던 수직 방향의 변형에서도 반도체 칩과 신축성 전극의 접합부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돼 신축성 전자 회로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은이나 갈륨과 같은 액체 금속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어 신축성 전자 회로에 널리 쓰여왔다. 액체 금속은 그러나



다른 금속과 접합했을 때 결정 구조에 잘 침투하고 금속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특성이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연구팀은 '주름진 탄소나노튜브 확산 방지벽'을 액체 금속과 고체 금속 사이에 삽입해 액체 금속이 확산되지 못하고 전자만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축 가능한 실리콘 고무 기판을 미리 늘려둔 상태로 은 회로를 인쇄한 뒤, 그 위에 탄소나노튜브를 약 100나노미터 정도로 얇게 형성한 후 늘려둔 기판에 원상복귀시켰다. 그 결과는 회로와 탄소나노튜브 박막 위에 동일한 주름을 형성해 마치 스프링처럼 퍼지면서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제작된 주름진 탄소나노튜브 위에는 액체 금속을 올려도 아래에 형성된 금속 박막으로 액체 금속이 침투하지 못한다.

연구팀은 또 주름진 확산 방지벽과 액체 금속을 이용해 신축성 회로에 표면실

장소지를 접합하는 방법을 선보였다. 기존에는 부드러운 신축성 회로와 딱딱한 표면실장소자가 연결되는 접합부에 수직 방향의 큰 스트레스를 주면 접합부가 파괴되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표면실장소자의 접합부가 액체 금속 위에 떠 있는 플로우팅(floating)접합 기술을 개발해 딱딱한 소자와 부드러운 기판을 스트레스 없이 전기적으로 접합시켰다.

홍용택 교수는 "이렇게 제작된 회로는 늘려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뿐만 아니라, 표면실장소자를 위에서 반복적으로 늘려도 회로가 손상 없이 동작하는 뛰어난 성능을 나타낸다"며 "사용자가 실제로 누르면서 상호작용해야 하는 신체부착형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기기의 제작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진흥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퍼시픽 머티리얼(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12월 19일자에 게재됐고, 인사이드 커버 이미지로도 선정됐다.

[한용수 기자 hys@

카카오모빌리티, '승차거부 없는 택시' 만든다

택시운송 가맹 사업자와 MOU 여성전용·팻 등 부가택시 운영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택시 서비스 고급화 및 택시 수익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 산업 혁신을 위한 공동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타고솔루션즈는 한미산업운수(주) 오광원 대표가 설립한 택시운송 가맹 사업체로, 택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고 택시 기사 수입도 증대시켜 택시 업계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왼쪽)와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인 타고솔루션즈 오광원 대표가 성남시 분당구 관교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택시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공동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운송 가맹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제도로 시민의 택시 이

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택시 운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성전용택시, 팻택시, 대절 택시, 수요 응답형 택시서비스 등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타고솔루션즈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택시운송 가맹사업을 전개해 '승차거부 없고 친절하고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화된 택시 부가 서비스를 통해 승객에게는 쾌적하고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택시 기사에게는 수입 구조를 개선해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